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대계를 꿈꾸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최명순

“

분만 진통은 어렵지만 값진 작업으로 엄마의 힘을 얻었던 새 생명 탄생과정을 통하여 아이와의 좀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낳은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올바른 분만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지난 2.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의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2009년에 1.15명으로 2008년보다 0.04명 줄어들었으며, 출생아는 44만5천 명으로 2008년 46만6천 명보다 2만 1천 명 감소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백호 띠 신생아들로 병원이 붐비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띠에 맞춰 출산하려는 예비엄마들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한다. 황금돼지해라던 2007년도에 일시적인 출산율 상승(합계출산율 1.25)이 일어났던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던 상황이라 그 반가움이 더 크다.

옛날 같으면 백말이나 백사(白蛇), 백호(白虎)의 해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사주가 세서 살아가기 힘들다고들 하였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성별에 구분없이 백호를 닮은 웅감하고 씩씩한 사주를 타고 태어나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겠다. 때로는 아기의 사주를 보아 일시를 정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요구하는 산모도 있다고 한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TV드라마 ‘제중원’에서 서양식 의학이 들어와 조선 최초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이 방영되었다. 제왕절개 분만은 산모의 복부를 절개한 후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는 수술법이다.

제왕절개 분만(cesarean delivery)은 로마시대 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edi)”의 세 마디 보고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사르(Gaius Julius Cesar)가 산모의 배를 가르 후 꺼내졌다 하여 붙여진 용어라는 설도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한 출산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한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 평가’ 결과 국내의 제왕절개분만율은 36.3%(200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모 10명 가운데 3~4명 정도가 제왕절개로 분만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전체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21.3%(2006)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제왕절개분만율은 평균 5~15%이다.

우리 지역의 광주는 제왕절개분만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 '01년 28.8%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07년에는 29.0%로 다소 증가한 후 '08년에는 28.6%로 나타났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31.9%와 36.3%로 나타났다.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야기한다. 제왕절개분만을 한 산모는 입원기간이 길어져 진료비용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회복도 늦어지므로 가사나 사회로의 복귀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다. 제왕절개분만은 정상 분만이 불가능하거나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 분만을 하면 산후에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면역물질과 항체를 포함하고 있어 신생아 감염질환의 발생을 현저히 줄여주는 모유 수유의 성공률도 높아지고 진통을 하는 과정에서 아기의 폐기능도 훨씬 좋아진다.

또 예전에는 첫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았다면 정상 분만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도 정상 분만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구조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을 적극 개선하지 않는 한 저출산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아기들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겠다. 진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용상의 이유로 정상 분만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해 내려오는 태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출산 시 산모의 감정이 아이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태아 심리학의 권위자인 토마스 버니박사에 의하면 제왕절개분만은 잘못된 성적 태도 심지어 육체적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태아가 산도를 따라 밀려나오는 순간 느끼는 고통과 쾌감은 먼 훗날까지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다고 한다.

분만 진통은 어렵지만 값진 작업으로 엄마의 힘들었던 새 생명 탄생과정을 통하여 아이와의 좀 더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으로 낳은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올바른 분만법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정세완



겨우내 동면을 하는 개구리가 봄기운에 천지 구경을 하러 나온다는 절기인 경칩이 일주일이나 지났다. 봄을 시샘하는 눈은 온천지를 설록의 백색으로 물들였다. 하얀 띠가루를 덮어놓은 듯한 산천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눈은 온 세상을 모두 하얗게 만들었다. 모든 만물은 형태만 유지한 채 한 가지 옷으로 갈아입었다. 겨울에 눈이 많은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올해도

도 결국 인간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이동축이 옮겨간다. 하지만 자연이 오열되면 개발한 사람은 그 개발이익을 얻겠지만 자연이 병들면 인간이 병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다시 받는다는 것이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위가 풍년이 찾아오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햇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이 질듯이 우리는 인간의 존스러움을 잃고 개발과 문명의 이기심에 물들어 살면 결국 그

근원적 은혜에 대한 깨달음

풍년이 들어서 시름이 가득한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쓰다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천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운 관계이다. 자비와 사랑의 대상이다. 요즘 매스컴에 보도되는 성폭행을 비롯한 대기업 간부의 자살, 촉망받는 대학 교수의 자살, 어머니를 살해한 게임중독 아들, 아들에게 젖을 채 때에 주지 못해 아사 상태로 죽게 한 게임중독 부부 등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은혜에 매달라 있음을 느낀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지극천립 각박하지는 않았다. 다 같이 농사를 지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집안의 대소사를 공동으로 행기면서 자연스럽게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었다. 인간 그 자체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있었다.

인간중심의 사회는 어느 순간에 물질중심의 사회로 변하였고 물질의 편리를 안 사람들은 예의와 열치보다는 물질의 편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물질의 사회에서는 많은 재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숭배되고 모두가 더 많은 물질의 소유를 위해 향해 달려가는 사회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문명은 인간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과 문명을 초월한 절대 밝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우리 모두는 업을 지으면서 살아간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업이다. 때로는 좋은 업을 짓고 때로는 나쁜 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신작용이 모두 업이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업의 작용이다.

우리는 이 업을 초월하려면 어둠과 밝음이 하나인 것을 알고 마음속의 욕심의 근원이 무명인 것을 알아서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인 진리를 깨달으면 된다.

원불교를 개교한 소태산 대중사는 “우리 모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하시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시면서 “네 가지 은혜”를 말씀하셨다.

모든 삼라만상이 나의 부처님이요 나 또한 모든 삼라만상의 부처인 것을 알아 모든 사물을 부처 대하듯 불공하는 마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은 은혜로운 세상인 줄 것을 확신하며, 나부터 사람과 모든 사물을 은혜롭게 바라볼 것을 다짐해 본다.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사무국장〉

기고

최인림



일본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가 최근 대규모 리콜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가속페달 결함으로 1000만대를 리콜한 도요타의 독재자를 보여주는 사건이 미국에서 터진 것이다. 미국상원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은 ‘품질 도요타 신화’는 물론 일본으로서는 국치에 버금가는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판매된 100만여 대를 정보공개 없이 몰래 수리해온

31년 원자력발전역사는 원전기술력과 신뢰로 쓰여 졌으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개척하는 절벽이 되었다. 그 밑바탕에 바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자력법은 발전소 운영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원전은 안전성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운영에 심혈을 쏟고 있다.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언론과

도요타가 주는 교훈

사실까지 들들나면서 고객에 대한 신뢰는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은폐의혹을 제기하였고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청문회에 불려나가 고개를 숙였으며 끝내 직원을 앞에서 신뢰를 잃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30년에 걸쳐 쌓아올린 ‘안전신화’가 불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실추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10~2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만큼 고객의 신뢰는 기업의 생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UAE 수출을 시작으로 세계에 터브를 받으면서 과거 하나의 전력생산방식에서 명실공히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축인 원자력산업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을 통해 원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했던 도요타의 미봉책은 고객들에게 커다란 불신을 심어주었다. 눈 속에 파묻힌 오물은 불날이면 모두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제 국민들은 선진국의 길목에서 원자력산업의 투명한 경영을 거울삼아 국가,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의 투명한 경영을 지켜봐야 한다.

‘도요타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전관계자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바로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광원자력본부 부장〉

올바른 운전습관, 성숙한 교통문화 만든다

“첫째, 파란 불이 켜지는 순간 뒤에서 경적이 울린다. 그전에 출발해라. 둘째, 차간 거리는 1인치도 두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옆 차가 바로 끼여든다. 셋째, 시원하게 달리려면 레미콘 차를 사라. 모든 차가 비켜준다. 넷째, 모든 차선을 헤집고 다녀라. 차선 잘 지키다간 앞으로 가기 어렵다. 다섯째, 막히면 경적을 울려라. 여섯째, 마구 끼어들어도 손만 흔들면 된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운전하기’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뜨는 글이다.

교통문화는 사회의 다른 예절보다 더 중

요하다. 인명 피해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안전 규정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질 수가 없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과 막가파식 끼어들기, 시도 때도 없는 경적 울리기 등 우리의 운전습관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이 시급하게 고치고 가야할 중요한 습관이 있다며, 바로 이 교통문화 아닌가 한다.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시설

‘무소유’ 法頂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며 세상에 깨달음을 전한 법정(法頂) 스님이 11일 입적했다.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지 1년 만에, 대중이 의지했고 위로받았던 또 하나의 버팀목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 애석하기 그지없다. 특히 법정스님은 해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목포에서 지냈으며, 송광사에서 출가하는 등 우리 지역과 각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어 지역민의 슬픔은 더욱 크다.

법정스님은 종교인으로, 문필가로, 때론 환경보호와 생명사랑의 시민사회 운동가로 우리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종교와 벽을 허물었던 것으로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 산문집과 정기법문을 통해 시대의 잘못은 날카롭게 꾸짖고, 세상살이의 번뇌를 호소하는 등 중생들을 위로한 큰 어른이었다.

스님의 생애는 산문집의 제목처럼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였다. 탁월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 산문집으로 종교를 초월해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

은 ‘스타’ 스님이었지만 그는 평생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출가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다. 자신이 참견한 길상사의 회주를 한동안 맡았을 뿐, 그 흔한 사찰 주지 한 번 지내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법정스님이 생전에 한결같이 실천한 무소유의 정신은 무한경쟁과 탐욕의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의 등불이다. “소욕지족(少慾知足)”,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삶의 향기인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깃들어 있다”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온갖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진 세대에 사달리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해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킨 법정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삼가 고개를 숙인다.

엄격한 공천심사로 부적격 인물 걸러내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후보자 공천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규 개정을 통해 공천심청 불허기준을 정했고 민주당은 공천방법을 둘러싸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지 15년이 지났으나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는 더 깊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비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2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부패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임기 도중 물러났다. 이 같은 중도하차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상당수 단체장들이 비리로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데는 공천과정에서 부터 부적격자를 철저히 걸러내지 못한 정당의 책임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또다시 ‘민주당자 깃발만 쫓으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후보자 공천기준을 당이 아닌 ‘유권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로 부적격자를 공천과정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당마다 성범죄자를 비롯한 파렴치범의 경우 아예 공천 신청조차 받지 않거나 참신한 인사를 발탁하는 개혁 공천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국민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이 특정 정당에 복당하는 등 벌써부터 개혁공천 약속이 빗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 비리 전력자는 물론 의혹이 있는 사람까지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비리 전력자들을 정당이 공천할 경우 투표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이는 입에 쓴 것이 몸에 이롭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한방에선 쓴맛이 위의 활동을 돕고, 기운을 돋우며, 열을 내리는 효능을 지녔다고 본다. 영약이라는 인삼이 쓴 거야 다 아는 사실이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한다는 알로에는 원래 아라비아어로 ‘쓰다’는 뜻이다.

녹차의 쌉쌀한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암세포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봄에 나는 냉이·달래·머위·두릅·쑥바귀 같은 나물도 입맛을 돋우고 나른해지는 봄에 원기를 북어넣는 것도 특유의 쌉쌀한 맛과 연관이 있다.

쓴맛의 효능은 춘곤증 해소에 그치지 않는다. 하도 써서 고체(苦菜)로도 불리는 쑥바귀는 건위(健胃)는 물론 해열 효과가 뛰어나 봄에 먹는 생리불순과 변비에 좋다고 한다. 참두릅·연나물은 혈액순환을 돕는다. 봄나물의 쓴맛만 지친 심신을 일깨우려. 살아가면서 느끼는 쓴맛 역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만든다. ‘와신삼담(臥薪嘗膽)’의 고사에서 보듯 쓰디 쓴 고통을 맛보면 월왕 구천이 쏠에서 잔 오왕 부처를 이긴 걸 보면 쓴맛의 힘은 위대해 보이니까지 한다.

신חק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당장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4년생들과 올 연말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 시기가 그 어느 때 보

다 중요하다. 이들 모두가 이맘때쯤이면 한눈 팔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겠다는 굳은 각오는 “나는 안돼”하고 지리멸렬해지기 일쑤다. 제풀에 포기하거나 의지가 약한 이들에겐 실패의 쓴맛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왕 마음을 다잡았다면 올 한해 꼭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한다. 인내를 쓰고 열매는 달다 하지 않았던가. 오늘 하루 또 내일 내가 진하게 음미하는 인내의 쓴맛은 성공으로 이끄는 자랑분이 된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h8@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誌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자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